

전북대 한옥 수출 본격 궤도 올라

베트남 수출 위해 한옥 부재 상차... 선적 후 2월 중 공사 거친 뒤 3월 초 한옥 정자 완공

전북대학교 한옥이 드디어 베트남으로 간다.

그간 베트남과 알제리, 미국 등과 잇달아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위한 작업을 해 온 전북대가 9일 베트남 수출을 위한 한옥부재를 선적하기 위해 상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1차적으로 베트남 퀴논시에 건립될 한옥정자 건축에 필요한 기둥과 대들보, 연목, 기와, 초석 등을 실었다.

이날 실린 한옥 부재들은 부산으로 이동해 배편으로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2월까지 현지에서 공사를 거친 뒤 3월 초 한옥 정자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간 전북대는 알제리에 한국전통 한옥정자와 전통 정원, 베트남에 한옥정자와 흥보관, 주빈센터, 어린이집 등을 약 10여 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에 40여 채의 한옥마을을 짓기로 협약을 맺고, 현재 도면작업과 부재 치목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한옥은 전북대 한옥 관련 과정을 졸업한 수료생들이 창업해 직접 제작한 것이다. 기술지도와 도면은 화과 교수진과 함께 검토해 완성하고, 짝 역시 교수진과 창업생



전북대가 9일 베트남 수출을 위한 한옥부재를 선적하기 위해 상차를 진행했다.

들이 힘을 합쳐 만든 것으로, 교육과 산업이 하나가 된 모델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를 주관하고 있는 남해경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그동안 서류로만 진행되던 한옥 수출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돼 매우 기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과도 좋은 결실을 맺어 전북대의 한옥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전문적인 한옥인력양성사업 추진과 한옥 수출의 전진기지 구축 등을 위해 내년부터 고창캠퍼스에 '한옥건축학과'를 개설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유명 애니메이션·뮤지컬 '한 자리에'

완주군, 17일부터 '뮤지컬 인 삼례' 갈라콘서트 4회 공연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4회에 걸쳐 크리스마스 주간특별공연 '뮤지컬 인 삼례' 갈라콘서트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연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겨울왕국>, <알라딘>, <노트르담 드 파리>, <팜파미아> 등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던 유명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의 한 장면을 모아 배우들이 직접 노래하고 시연하는 갈라 콘서트로 진행된다.

전라북도아 함께하는 공연은 군민들을 비롯해 누구나 무료관람 가능하며,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삼례문화예술촌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17, 24일은 저녁 7시, 18, 25일은 오후 3시 공연이며 크리스마스인 25일 공연은 삼례문화예술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완미너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크리스마스 주간특별공연 기획으로 문화예술도시로서 다양한 공연문화를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분위기를 한층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 양곡 수



탈창고로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현대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미술, 공예, 음악 등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해 올해에는 프랑스와 예술의 혁명전, 지역작가 님다 전시전, 가족뮤지컬 <삼례>, <금의의 꿈> 등이 열렸다. 관람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삼례문화예술촌 (070-8915-8121~2)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최초 국가사적 동촌리가야고분군, "옛 위상 되찾아"

고분군 1차 유적정비공사 완료

5~6세기 가야 수장층 무덤군으로 밝혀져 지역 최초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의 1차 유적정비공사가 완료됐다.

이번 유적정비사업은 장수군 마봉리에 위치한 동촌리 고분군의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전문가에게 철저한 자문을 구해 수목제거, 탐방로 정비, 잔디식재, 계단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했다. 특히 수목제거를 통해 1500년전 가야의 왕이 묻힌 무덤떼의 위상이 드러났으며 고분을 유적공원화 해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촌리 무덤떼가 자리한 동촌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을의 이름을 동가야마을로 변경했으며, 매년 고분군 주변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수기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동촌리 고분군과 논개사당, 누리파크를 잇는 유적 공원을 조성해 군을 대표하는 명소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유적과 관련한 연속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정비사업으로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장수기아의 옛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동촌리 고분군이 많은 이들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적정비를 통해 동촌리 고분군이 가진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모노레일 특별 안전 점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태권도원 모노레일에 대한 종합 특별 안전 점검을 9일과 10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용환 이사장과 재단 시설관리 담당자, 태권도원운영관리주식회사(자회사), 모노레일 제작사가 함께하는 종합 특별 안전 점검이다.

지난달 30일 실시한 모노레일 비상제동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에 이어 이번 안전 점검에서는 모노레일 선로인 레일에 대한 점검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점검이 이루어지는 9일과 10일은 태권도원 모노레일 운영을 중지하고 모노레일 제작사의 제도 부문 전문가와 점검을 진행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자회사는 안전 점검과 함께 최근 모노레일 비상구조 훈련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고객이 탑승한 채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해 모노레일 운전자의 상황 대처와 지원팀 출동, 안전한 대피까지 실제 상황 발생 시와 동일하게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부안수산업협동조합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김제수산업협동조합



해가람은 海 바다 '해'와 강이라는 순우리말 '가람'의 결합어로 전북에서 난 건강한 수산물을 뜻합니다.

부안수협 군산시수협 고창군수협 바다의향기 공소항사람들 금영수산물품 진서정갈식품 양지영어조합법인 청정바다정갈 (유)바다향 화우당 (주)아리물수산 (유)엘케이씨푸드 (주)진성식품 (유)기룡농업 칠보수산에스푸드 수경수산 바른수산 하전바지락영어조합법인 하전수산업어조합법인 지성양만 석현수산 해맑은수산물품



**해가람 쇼핑몰이 12월에 오픈합니다

